

2021년 2월 (44번째 소식)

적도의 땅! 폰티아낙 선교소식

배성현, 이산정, 지은, 승은, 승우

적도의 땅 폰티아낙을 가슴에 품고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려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려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려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로마 10:14~15)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의 후원은
인도네시아
서부칼리만탄을
복음화 시키는
소중한 씨앗으로
심겨질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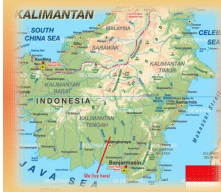
“1 여호와께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 그가 나를 푸른 풀
밭에 누이시며 쉼 만한 물 가로 인도하시느도다 3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느도다 4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
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
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5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6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

코로나와 건강의 문제로 선교사역의 어려움을 겪었던 지난 한 해 동안
계속해서 묵상하며 붙잡고 왔던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도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신뢰
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깨 통증의 재발과 수술... 그리고 회복을 기대하며...

작년 5월 18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인도네시아 국내선 항공편이
막혔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한국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
었습니다. 1월말부터 시작된 어깨 통증을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워 치료차
한국을 방문하여 3개월간의 치료를 마친 후에 호전된 상태로 8월 29일
에 폰티아낙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선교지에 돌아온 지 한 달여 만
에 다시 통증이 재발되었고, 안타깝게도 이전보다 상태가 더 좋지 않게
되었습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국가 간의 이동
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어서 11월 7일에 다시
한국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기 중이라 혼자 떠나게 되었는
데, 왼팔 하나 만으로 짐을 옮기며 힘겹게 귀국길에 오르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비행여정이 얼마나 녹초가 되었는지, 한국에 도착해서 자가격리
하던 첫날, 너무나도 오랫동안 잠들어 있었던 꿀잠을 잇을 수가 없습니
다.

자가격리 후 바로 병원에 가서 정밀진찰을 다시 받았는데, 의사선생님께
서 3주간의 치료를 한 후에 수술여부를 결정하자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3주간의 치료 후에도 어깨 상태는 차도가 없어서 결국 수
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의 후원으로 수술은 잘 진행되
었고, 퇴원 후 10일이 지났을 때는 건강이 많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은
혜 가운데 파송교회에서 열린 “세계선교대회”에 참석하여 선교보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남아서 좀 더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했지만,
2월 23일 만기인 비자 수속과 처리 문제로 저는 2월 2일에 다시 폰티아



2021년 2월 (44번째 소식)

적도의 땅! 폰티아낙 선교소식

배성현, 이산정, 지은, 승은, 승우

적도의 땅 폰티아낙을 가슴에 품고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려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려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려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께 갓으리라”
(로마 10:14~15)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의 후원은
인도네시아
서부칼리만탄을
복음화 시키는
소중한 씨앗으로
심겨질 것입니다

낙으로 돌아왔습니다. 3개월 동안 떨어져 있었던 가족들을 만나니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특히 제가 없는 동안 아이들을 잘 돌보고 많은 일들을 감당해준 아내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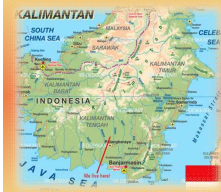
저는 현재 한국에서 구입해 온 재활기구들과 함께 집에서 열심히 재활운동을 하며 회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직 수술한 팔이 스스로의 힘으로 올라가는 데에는 제한이 있고 불편함도 느끼고 있습니다.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약 1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니 느긋하게 마음을 먹고 하루하루 재활운동에 최선을 다하라고 하셨던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인내함으로 잘 버텨야 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정글에 있는 교회들과 사역지들을 방문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소식은 계속 주고받고 있지만, 직접 가서 얼굴을 볼 수 없는 아쉬움을 달래기가 쉽지가 않네요. 그래도 제가 건강을 잘 회복해야 장기적으로 선교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씩 해치지 않고 조금 천천히 속도를 조절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영혼들이 더해지는 은혜를 경험하며...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한 중에 임마누엘침례교회에 더해진 영혼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최근에 2가정(어른 4, 아이 2)과 청년 1명이 교회 성도의 인도로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번주간에는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청년을 심방해서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임마누엘침례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개척된 지 만 5년이 지났습니다. 그간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혼에 대한 부담을 갖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애를 쓰는 모습을 보는 것이 선교사인 제게는 너무나도 큰 기쁨이요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코로나방역 때문에 현재 주일학교 아이들은 모이지 않고 있는데, 그런 중에도 이미 예배당 좌석이 꽉 차서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손길을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이 교회에 더해지도록, 그리고 더 넓은 예배당을 잘 구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적도의 땅을 위해 배푼어주시는 기도와 사랑의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 2월 19일
적도의 땅 폰티아낙에서
배성현 선교사 가족 올림



2021년 2월 (44번째 소식)

적도의 땅! 폰티아낙 선교소식

배성현, 이산정, 지온, 승온, 승우

적도의 땅 폰티아낙을 가슴에 품고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려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려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려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께 같으니라”
(로마 10:14~15)

기도해 주세요

- 01** 배성현 선교사의 오른팔 어깨가 수술 후 부작용 없이 재활을 통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 02** 배성현 선교사가 오른팔 사용이 불편한 관계로 당분간 정글지역을 방문하기 어렵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정글지역사역(뜨른망침례교회와 기독교유치원, 팔리마스침례교회)이 잘 진행되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 03** 참으로 오랜만에 비자문제가 어려움 없이 잘 해결되어서 폰티아낙에 1년간 거주 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감사하게도 비자가 잘 해결되었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 비자신규발급이 중단되는 등 많은 선교사님들이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비자의 길이 속히 열려서 선교사님들이 다시 선교지인 인도네시아로 돌아와서 사역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 04** 작년 3월부터 시작된 아이들 학교의 온라인 수업이 3학기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삼남매(지온, 승온, 승우)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해 주셔서 온라인 수업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시기를 잘 인내하며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 05** 임마누엘침례교회 예배당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매년 상승하는 임대료도 부담이 되지만, 사역을 위한 적당한 장소를 임대하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사역을 위해 장기상환대출 형식으로 주택이나 상가를 매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필요한 재정(계약금 및 중도금)이 잘 충당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임마누엘침례교회 성도들이 이 필요를 위한 믿음의 약속헌금에 한 마음으로 헌신하며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메일
0212bae@hanmail.net

연락처
070-4843-9485

후원계좌
국민은행:
048401-04-128048
우체국:
013052-02-169596